

함께하는 ^꿈은

이웃

June 2018 vol.180





우리가 도시락에 담은 것은
“사랑”입니다.

아이와 함께 모자(母子)수영을 하며 첫발을 들여놓은 태화,
그 아이가 태화 유아체육단에 들어가고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자연스레 녹색 어머니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녹색 어머니 활동에서 만난
엄마들과 인연이 되어 태화복지관 '사랑의 도시락' 반찬봉사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전 대상자가 많을 때에는 50여 세대를 위한 반찬을 만들었지만,
요즘은 대략 25~30세대를 위한 사랑의 도시락을 만들고 있습니다.

물에 들어가기 무서워 울던 아이가 대학생이 되었으니, 어느덧 반찬 봉사를
시작한지도 십 여 년이 훌쩍 넘었네요. 사랑의 도시락 반찬봉사를 하는 매주 목요일 오전,
식구들이 바빠 빠져나간 우리 집은 설거지, 청소도 못하고 나오기 일쑤입니다.
그렇더라도 어르신들, 식생활지원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한 반찬만은 정갈하고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 아침 일찍 서둘러 복지관으로 향하고는 합니다. 반찬을 드시는 분들의 건강과 입맛을
챙겨드리기 위해 제철 식재료, 되도록 국산 재료 위주로 구입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다양한 반찬종류를 시도해보려고 하지만 물가가 많이 오르고 봉사하는 분들의 인원도 줄어 어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사랑의 도시락 봉사에 더 오랫동안 꾸준히 참여하기 위해서 저의 건강 먼저 스스로 돌보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봉사활동 덕분에 건강도 챙길 수 있으니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바쁘고 귀한 일상의 시간을 쪼개
이웃을 위한 순수한 마음으로 모인 다른 봉사자들에게도 늘 감사드립니다.
거창한 사명감이 아닌, 내가 가진 약간의 시간과 용기를 내어 봉사 하는 것은 저에게도 큰 활력소가 됩니다.
집 가까운 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태화복지관이 있어서
그리고 태화에 많은 선생님들의 격려 속에 반찬 봉사를 이어갈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태화 사랑의 도시락 봉사 모임의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같이 행복해집시다!



04



06



10



12

June 2018 VOL.180

Contents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은 하나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섬김과 나눔의 실천을 통해 조화로운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갑니다.

- 04 복지관의 새로운 공간「모두모임」을 소개합니다
- 06 사례관리실천공유회 「우리 마을을 행복하게 하는 레시피」
- 08 지역기반형 교육복지협력사업「뽕뽕한 가족」
- 10 꿈꾸는 아이, 태화를 만나다「태화유아체능단」
- 12 청년의 꿈을 지원하는「청년사이다 with book」
- 14 태화가 만난 사람, 김충식 운영위원장
- 16 복지관 프로그램 참여 이야기「이웃 톡(Talk)」

- 18 생활 속 작은 습관「스트레칭」
- 20 TAIWHA NEWS
- 23 후원소식
2018년 후원금 수입지출 내역보고
- 24 후원에 참여하신 고마운 분들
자원봉사에 참여하신 고마운 분들

표지 유아체능단 - 노서아, 손지유, 정세은, 김승윤, 이태윤(왼쪽부터)
표지촬영 - 안재현 작가(재능기부)

2018년 6월 발행(통권 180호)

- 발행인 윤연주 ● 편집인 이시라 ● 발행처 사회복지법인 감리회 태화복지재단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 ● 기획&인쇄 화이트 Tel.512.3747
-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은 태화어린이집, 태화초록교실, 태화해뜨는샘, 강남구청소년심터, 강남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태화어린이집 Tel. 2040.1680 ● 태화초록교실 Tel. 2040.1698 ● 태화해뜨는샘 Tel. 2040.1780 ● 강남구청소년심터 Tel. 512.7942
- 강남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Tel. 2040.1690



복지관의 새로운 공간 「모두모임」을 소개합니다

글 변주희 대리(지역조직화팀)

복지관이 하는 모든 일은 ‘관계를 돕는 일’을 전제로 합니다. 주민 간 관계를 형성하는 일부터 시작하여,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이슈를 다루는 일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과 지역사회의 상생을 돕고 있습니다. 이에 복지관은 지역주민의 욕구, 시대적 흐름을 중요시 여기며 변화를 도모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변화 중 하나로 2018년 3월, 1층에 위치한 가족도서관을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가족도서관은 2005년부터 지역주민분들의 관심과 애정에 힘입어 운영해왔고, 같은 해 강남구청의 지원으로 가족도서관 내 청소년 대상의 ‘희망공부방’을 개소하여 2017년까지 운영해왔습니다. 1층은 복지관에 오시는 분들

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공간이기에 지역주민들이 더욱 쾌적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왔습니다.

이를 위해 2018년 1월부터 2월까지 138명의 지역주민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 결과, ‘복지관 내 주민들을 위한 자율적인 공간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83.3%였고, ‘가족도서관 내에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두면 좋겠다는 응답이 48.1%였습니다. 그 결과가 모든 지역주민의 의견을 대변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도서관과 공부방이라는 제한된 기능보다는 사람과 사람이 연결될 수 있는 ‘문턱이 낮은 공유 공간’으로의 필요가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주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반영하여 가족도서관 안내데스크를 철거 및 이동하고, 작은 무대로도 활용할 수 있는 독서계단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공부방으로만 사용하던 공간은 '모두모임'이라는 새로운 명칭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책읽기, 개별학습, 주민소모임을 할 수 있는 다목적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태화는 이러한 공간 변화를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서로 연결되고, 활력을 찾는 다양한 일들이 시도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복지관 공간의 작은 변화이지만 주민 분들이 '한 번 더 오고 싶은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더욱 귀 기울이며,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이용 부탁드립니다!

모두모임 이용안내



운영시간

- 평일 9시~17시 — 주민모임을 위한 공간대여, 개별학습 등
- 평일 17시~19시 — 주경아독(개별학습, 스터디모임 등 학습을 목적으로 한 주민 누구나 이용 가능)
- 토요일 9시~15시 — 주민모임을 위한 공간대여, 주경아독

모두모임에서는 무엇을?

- 주민모임, 개별학습, 책읽기 등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영리적, 종교적, 정치적 목적으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용방법

- 이용하실 분은 최소 일주일 전 전화로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약현황은 매주 월요일 가족도서관 내 알림판에 게시합니다.
- 예약이 없는 시간대에 한해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 가능합니다.

신청문의 지역조직화팀(02-2040-1633)

사례관리실천공유회 「우리 마을을 행복하게 하는 레시피」

글 임장현 팀장(사례관리팀)



사례발표회는 당사자의 삶과 지역사회
사람살이를 빛나게 하는 자리입니다.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복지를 이루게 거들었으니,
이를 칭찬 감사하고 응원하는 자리여야 합니다.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복지를 어떻게 이루었는지,
또 그 과정에서 사회복지사가 어떻게 도왔는지
나누는 자리입니다. 이를 당사자가 들려줄 수 있고
사회복지사가 들려줄 수도 있습니다.
당사자가 어려움을 이겨냈거나 그렇게 애쓰고 있는
이야기, 좋은 것을 이루고 누리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응원하는 자리입니다.
또한, 사회복지사가 잘 거들었으니
그를 칭찬하고 격려하는 자리입니다.

- 복지관사례관리공부노트(2017, 김세진 저), 251쪽 -



사례관리팀에서 만나 뵈는 분들 중에는 우울, 장애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편으로는 각자가 강점을 토대로 누군가에게는 '멋진 아빠', 누군가에게는 '참된 이웃'으로 살고 계신 분들입니다. 이 분들이 지역사회에 살아가시는 가운데 우울과 장애라는 낙인보다는 '강점을 갖고 최선을 다해 자기 삶을 살아가시는 이웃'으로 자리매김 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난 3월 '2018 사례관리실천공유회 우리 마을을 행복하게 하는 레시피'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지역주민, 지역 내 사회복지사 분들을 초대하여 사례관리를 이용하시는 당사자의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당사자가 직접 무대에 올라 자기 삶을 이야기 나눈 것은 물론, 당사자의 삶에 동행했던 사회복지사도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울이 있는 한부모 남성가장으로서 쉽지 않은 삶을 살았지만 '아버지로서 삶'을 살고자 애썼고 그 과정 가운데 생각과 삶의 변화가 있었다는 진솔한 이야기, 삶 속에서 여러 고난이 있는 중에도, 이웃 간 감정잔치를 통해 관계를 쌓으며, 함께 담근 김치를 단지 내 이웃과 나누며 나눔을 실천하고 관계를 만들어 간 이야기 등을 나눴습니다. 각자 준비하여 발표한 내용만으로는 아쉬움이 있어



“‘빛’과 같다는 소감이 기억납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 밝혀 질 때 한 부분만 밝혀지지 않고, 주변까지도 어슴푸레 환해지는데 그 의미가 당사자의 삶에 있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그 만큼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 사례관리실천공유회 청중 A 씨

“용기 내어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한 당사자들을 지지하고, 힘든 상황을 잘 버텨내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한 당사자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 사례관리실천공유회 청중 B 씨

“당사자 분들께서 직접 앞에 나와 발표하는 것이 큰 도전이었을 텐데, 그 도전을 멋지게 잘 해내신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 사례관리실천공유회 청중 C 씨

인터뷰 시간을 따로 만들어 청중들이 궁금해 할 만한 한 톨이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멋진 무대에서 당사자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청중들은 그들의 삶에 귀 기울이며 몰입하였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들었던 그들의 이야기 속에는 희로애락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내내 모두가 함께 웃고 함께 울었습니다.

당사자가 용기 내어 실천공유회에서 자기 삶을 나누는 모습, 지금까지 잘 살아냈고 앞으로도 잘 살아가고 싶다는 당사자의 진심을 청중들이 깊이 느낀 듯 했습니다. 힘든 상황을 버텨내고 자신이 가고 싶은 삶의 방향으로 살아내고자 노력한 당사자들의 삶을 보며 이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생각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여느 사람살이와 같다’는 생각, ‘이런 게 사람 사는 거지’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때때로 삶 가운데 위기가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의 삶 전체를 결정짓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면에 있는 당사자의 진짜 삶을 볼 수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낙인효과(stigma effect)는 ‘어떤 사람이 나쁜 사람으로 낙인(烙印, stigma, 스티그마)찍히면 그 사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이론입니다. 과거에 대한 나쁜 기억은 웬만해선 사라지지 않으며 오히려 상황을 부정적으로 몰고 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을 단정 짓는 것이 우리의 시각을 흐리게 하고 부정적인 존재로서 인식하도록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번 사례관리실천공유회와 같이 자신의 삶을 솔직하게 내어놓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진다면 약자도 살만한 지역사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약자도 살만한 지역사회라면 누구나 살만한 지역사회이지 않을까요?

사례관리실천을 통해서 당사자가 지역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금번 사례관리실천공유회는 모임을 주선한 사회복지사보다 당사자가 주체가 되어 무대를 이끌어갔기에 더욱 의미가 있었습니다. 잘 살아오신 당신의 삶을 지역사회에 당당히 이야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당신들의 삶이 더욱 빛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곁에서 늘 응원하겠습니다.



지역기반형 교육복지협력사업 「뽕뽕한 가족」

글 오정철 팀장(서비스제공팀)

Q. 지역기반형 교육복지협력 사업이 무엇인가요?

학교와 지역기관이 연계·협력하여 교 육소외 학생의 교육안전망 구축, 돌봄·학습, 문화, 예술·체육 등의 지원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Q. 현재 태화에서 진행되고 있는 교육복지협력사업은 무엇 인가요?

수서·세곡동 교육복지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지역 내 가족관계 증 진이 필요한 가족을 위한 가족사례관리 및 공동체 활동(오리엔 테이션, 가족캠프 및 송년모임), 개별가족프로그램, 보호자집단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여하는 가족들이 가족 내에 서의 관계를 회복하고 지역사회 안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 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Q. 수서·세곡동 교육복지네트워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수서·세곡동 내 학교 및 복지관은 위와 같은 취지에 공감

하고 2013년부터 사업을 시작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참여하고 있는 학교 및 복지관은 총 9개입니다.

학교는 수서초등학교, 수서중학교, 율현초 등학교, 세명초등학교, 세곡중학교가 참여하고 있으며, 복지기관은 강남교육복지센터, 수서명화중 합사회복지관, 수서종합사회복지관, 태화기독교사회복지 관이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태화기독교사회복 지관이 9개 기관을 대표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Q. “뽕뽕한 가족” 사업에서 가장 특화된 프로그램은 무엇인 가요?

사업 중 가장 특화된 것은 개별가족프로그램입니다. 개별가족프 로그램은 가족들의 욕구와 변화목표에 따라 맞춤형 된 프로그램 을 실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 가족상담, 놀이상담, 도예활동, 원예활동, 요리활동, 미술활동, 독서활동, 체육활동 등의 다양한 주제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가족들과 연계하고 있습니다. 실례 로, 부부 및 자녀와의 의사소통 개선이 필요한 경우는 가족상담

을 연계하게 되고, 자녀와의 관계 증진 및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할 경우에는 부모-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활동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각 가정만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실시되니 평소에 알지 못했던 자녀의 강점과 가족의 새로운 면을 발견하게 되기도 합니다.

Q. 보호자 집단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보호자 집단프로그램은 2015년부터 연간 총 5회기의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주제는 자녀양육 역량 강화를 위한 해결중심 집단상담, 부모 코칭, 감정 코칭, 부모양육태도 검사 및 해석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6-2017년에는 해결중심 집단상담을 하며 참여자들의 직접 양육방법의 변화를 시도해 보는 기회가 되었고, 실제 자신의 변화를 통해 자녀들이 변화됨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보호자 집단프로그램은 변화된 긍정적인 모습을 지속하도록 돕는것도 중요하므로 프로그램 이후에 담당 실무자와의 상담을 통해 적용하고 시도한 부분을 충분히 격려하고 있습니다.

Q. 사업에서 의미 있는 경험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가장 의미 있는 경험은 가족의 변화입니다. 이전에는 가족 안에서 갈등과 다툼이 많았는데, 2년 정도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가족관계 안에서 긍정적 의사소통이 일어나고, 서로를 아끼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족변화와 더불어 아동 및 청소년들도 학교생활에도 더 집중하고 잘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보호자집단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한 어머니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이전에는 자녀들이 변화되기를 바라왔지만, 막상 내 생각과 행동이 변화되니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변화하는 것 같아요.” 스스로 변화해야 할 부분을 알고 적용해 보면서 가정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Q. 네트워크 담당자들 간에 협력은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나요?

9개 기관의 실무자들이 각자의 업무환경이 다른 가운데 협력하여 일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현재 참여하고 있는 기관의 실무자들은 네트워크 사업에 대한 모든 일들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계십니다. 아마도 참여하는 가족을 향한 같은 뜻, 같은 마음을 갖고 사업에 임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또한 연 1회 진행되는 기관장 회의를 통해 사업에 대한 자문을 받으며, 각 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어 큰 힘이 됩니다.



꿈꾸는 아이, 태화를 만나다

태화유아체능단

클 나명경 원장(유아체능단)

2018년 3월,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의 23기 유아체능단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22년간 지역사회에서 어린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꿈꾸며 교육과정을 운영해온 유아체능단은 새로운 다짐으로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신체활동이 특화된 교육기관, 사람을 사랑하고 꿈꾸는 어린이로 성장시킬 수 있는 교육기관으로 지역사회에 자리매김 하고자 합니다.

유아체능단 친구들의 아침은 즐거운 하루를 기대하는 설렘이 목소리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기사님 안녕하세요!” 씩씩한 체능단 단원들의 아침인사로 피곤한 아침에도 기사님의 얼굴에 기분 좋은 미소가 번집니다. 길에서 만나는 이웃들은 함께 인사 나누며 배려와 사랑을 배우는 소중한 분들입니다.

유아체능단의 교육과정은 어떤 변화들이 있을까요?

경쟁으로 이어지기 쉬운 아이들의 신체활동! 꿈을 가져라! 용기를 내라! 체능단 친구들은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마음과 친구를 응원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배워갑니다. 이겨라! 잘해라! 라는 말보다 꿈을 가져라! 용기를 내라! 라는 응원은 친구의 목표 달성에 함께 기뻐하는 아이들로 자라게 합니다. 23기 단원들과 이제 처음 체육활동을 시작한 코코몽 선생님은 이러한 체육시간을 통해 친구들 간의 상호작용, 건강한 도전 정신을 키워 나가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체능단 친구들의 수영시간!

유아기 수영 수업의 장점은 온몸의 근육을 사용하는 운동으로 대근육 발달에 매우 좋으며 폐활량과 심폐지구력을 길러주고 순환기 계통의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교물교물 움직이며 스스로 옷을 벗어 정리하는 아이들, 손에 힘을 잔뜩 주어 수영 모자를 써보려는 아이들. 체능단 친구들은 교육과정 활동을 통해 스스로 할 수 있는 신체 조절력을 자연스럽게 습득하여 자신감이 쑥쑥 자라납니다. 태화 수영장에서 거북이(수영 보조 기구)를 매고, 킥 판을 들고 앉아 수업준비를 하는 유아들은 단연 눈에 띄입니다. 물에서 발장구만 치





던 아이들은 수영 선수처럼 물살을 가르며 새로운 수영 기법을 배워갑니다. 수업 끝나기 무섭게 수영선생님께 매달리며 애정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선생님 저 이제 접영도 할 수 있어요~!”

엄마 아빠! 함께 해 주세요!

부모님과 함께 하는 급식시간! 23기 유아체능단은 부모님과 소통하는 기관으로 함께 하고자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먹는 음식을 함께 먹고 아이들의 점심시간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부모님이 직접 참여하시도록 하며 교육과정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엄마가 직접 떠 주는 밥과 반찬은 왠지 더 특별하고 체능단에서 엄마와 함께 먹는 점심은 더 맛있게 느껴집니다.

점심식사 시간의 이벤트! 유아체능단에서는 체능단 고유의 예체능 중심 프로그램으로 인해 다소 약화될 수 있는 자연친화 프로그램을 유아교육과정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체능단 친구들이 자연학습장에 직접 심은 다양한 채소들은 점심시간 아이들에게 특별한 먹거리가 되어주고 가정으로 보내어 가족들과 나눌 수 있는 음식이 되기도 합니다. 아이들은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관계 맺으며 마음의 텃밭을 잘 가꾸어 “나”라는 인격을 완성합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진 우리 아이들의 꿈꾸는 미래를 위해 태화유아체능단이 오늘도 함께 합니다.

유아체능단 21기~23기 단원 사자반 송*진 엄마

“우리 아들은 5세 코알라반에 입학하여 이제 제법 의젓한 7세 사자반이 되었습니다. 처음 태화유아체능단을 선택한 이유는 수영과 태권도 등 다양한 체육프로그램이 마음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체능단에서는 주 2~3회 체계적으로 수영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었고 매일 규칙적으로 운동을 해서인지 감기도 잘 안 걸리고 건강하게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요즘 아이는 한자의 매력에 푹 빠져 수업시간에 배운 한자를 자랑스럽게 엄마에게 써 보입니다. 영어CD도 듣고 가정으로 보내주시는 활동DVD를 보며 동생 앞에서 잘 한다고 뽐내기도 합니다. 체능단을 다니는 동안 자존감도 높아지고 양보, 배려를 잘 하는 아이로 사회성이 성장함을 느낍니다.”

유아체능단 23기 단원 팬더반 박*준 엄마

“엄마 바라기인 아들은 3월초에는 매일 아침 엄마와 함께 체능단 대신 회사에 가고 싶어 하고, 4월에는 물이 무섭다며 수영 시간에 수영장에 들어가지 않아 조금 속상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수영선생님을 만나는 시간을 기다리고 집에서도 영어 노래를 흥얼거리네요. 무뚝뚝했던 아들은 다정하신 선생님을 덕분에 ‘아픈 친구를 위한 기도를 자기 전에 꼭 해요’, ‘내일 수업 시간표를 챙겨요’, ‘그림 그리고 싶어요’라고 자기 표현을 할 줄 알고 ‘이런 친구가 좋아요’, ‘차에서 지켜야 할 규칙이에요’라며 사회성을 배우는 아들을 보며 오늘은 또 얼마나 멋지게 자라 있을 지 설레는 마음으로 퇴근을 해요. 아이들에게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태화 선생님들께 감사드려요♡”

청년의 꿈을 지원하는 청년사이다 with book



이 시대의 청년들이 함께 책 읽고 글 쓰고 토론하고 때로는 취미를 배우며 관심사를 공유하는 모임인 「청년사이다 with book」을 소개합니다.

글 이수연 대리(사회교육팀)



책, 혼자보다는 같이 읽어요!

「청년사이다 with book」은 20~30대 청년들이 독서모임을 기반으로 학습문화를 구성하고, 다양한 평생학습을 통해 배움과 나눔을 실천하는 모임입니다.

최근 들어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하는 ‘Work and Life Balance’ 즉 ‘워라벨’이라는 단어가 20~30대 청년들의 가치관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취업난과 힘든 직장 생활 속에서도 취미 활동을 통해 삶의 균형과 즐거움을 찾는 청년들이 점차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태화는 강남구에 거주하는 청년들과 청년 평생학습동아리를 2017년에 조직했고, 2018년에는 책을 매개로한 독서모임 「청년사이다 with book」으로 발전했습니다.



「청년사이다 with book」은 독서모임을 매개로 다양한 평생 학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퍼스널 컬러를 통한 커뮤니케이션’, ‘혼밥족을 위한 레시피 참쉬운 혼밥’, ‘인생을 바꾸는 몰입 독서법’, ‘손진환 작가와의 만남’, ‘감성충전 나만의 캘리그라피’ 등 트렌디하고 다양한 평생학습을 배우는 시간을 통해 서로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후에도 ‘나만의 힐링 인테리어’, ‘내 몸이 좋아하는 나만의 천연비누 만들기’, ‘나에게 맞는 스트레칭과 운동법 레슨’, ‘집에서도 카페같이 맛있는 커피 만들기’, ‘내 손으로 만드는 명품, 가족공예’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여하고 싶은 청년들은 언제든지 문의의 주세요! 앞으로 「청년사이다 with book」에서는 청년이 청년을 돕고 평생학습의 자원 공유와 학습결과의 환원 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청년들의 진솔한 이야기가 담겨있는 사례집 또한 기대해주세요.

‘참쉬운 혼밥’ 수업 후 최00 청년의 후기

“평소에도 요리를 하고 싶었는데, 혼자 있다 보니 요리방법을 알지 못했어요. 이참에 청년사이다를 통해 요리를 시작해 보게 되어 참 좋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파트 관리하시는 분들께 나눠 드리니 무척 좋아 하시더라고요. 여러모로 즐거운 하루였습니다.”

「청년사이다 with book」 평생학습동아리 : 강남구 지역특성을 반영한 1인 가구 청년층 대상 평생학습 지원 사업으로 강남구 교육지원과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사회교육팀(02-2040-1740)



태화가 만난 사람 김충식 운영위원장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의 김충식 운영위원장님을 만나 보았습니다. 김충식 운영위원장님은 도곡동에 위치한 서울연합교회의 담임목사로 재직하고 계시며, 기독교대한감리회 서울남연회 감독으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지난 2007년 5월부터 2018년 6월 현재까지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의 운영위원장을 역임하시며 태화의 복지사업을 살피고, 직원들을 격려하며 기도로 동역해 주고 계십니다. 운영위원장님에게 태화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쭙보았습니다.

글 이사라 대리(지역조직화팀)

Q. 태화와의 인연, 운영위원장님으로서 역임하신 이야기를 들려주시겠어요?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을 다닐 때 사회복지 실습 과목을 수강한 적이 있는데, 당시 종로에 있던 태화복지관에 가서 사회복지관이 하는 일들을 듣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후 1995년 태화복지관이 수서동으로 이전하였는데, 제가 강남지역 감리회 지도자로 활동하다보니 자연스럽게 지역 내 감리회 목사님들과 교류하며, 감리회에 소속된 태화복지관에 더 관심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2007년, 전임 운영위원장이셨던 정하봉 목사님의 권유로 태화복지관 운영위원장을 맡게 되면서 태화와 소중한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2007년 태화의 상황은 운영 상 재정적으로 큰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아마도 개관 이래 가장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관장님을 비롯한 태화 임직원들의 수많은 헌신과 노력이 있었고, 감리회 재단의 지원과 지역의원 등 많은 이들의 관심과 협력 속에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태화 운영위원장을 맡았을 때 직원들은 상당히 힘없고 위축된 모습이 있었는데, 위기를 이겨나가면서 점차 얼굴이 밝아지는 것을 지켜보면서 큰 감동을 느꼈습니다. 힘든 시절을 꿋꿋이 버텨 낸 임직원들이 대견하고 고마울 뿐이지요. 또한 태화의 모든 발걸음에 함께하시며, 어려운 시절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때마다 필요한 도움과 사람들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태화 운영위원장을 지내면서 태화의 직원들을 보면 많은 직업인들 중에서도 사회복지사는 희생, 봉사, 섬김의 정신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좋은 분들과 함께 동역할 수 있어서 10여년의 세월이 값지고 보람되었습니다.

Q. 태화복지관의 역사적 의미, 현재의 가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태화는 미국감리교의 여선교사님들이 처음 시작하였지요. 1920년대 당시 우리나라 여성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소외된 사람들이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도 그 분들과 같은 삶을 살아야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근본적으로 심어준 곳이 바로 태화이죠. 또한 삼일운동을 이끌었던 독립 지도자들이 태화를 거점으로 일하였기에 역사적으로도 큰 의미를 지닌 곳입니다.

태화의 정신이 곧 지금 우리나라의 복지 정책의 근간을 이루는데 기여한 바가 많다고 봅니다. 요즘은 사회전반적인 분야에서 복지가 강조되고 있는데 그런 씨앗의 역할을 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태화가 좀 더 창조적으로 일하고, 다른 사회복지기관들에 본을 보일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노력해 나가길 바랍니다. 시대를 읽고, 한걸음 더 앞서나갈 수 있는 태화가 되면 좋겠습니다.

Q. 지역사회복지관으로서 태화복지관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조언해주세요.

현대사회의 과학기술과 문화가 발전 하는 한편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더 큰 소외감을 가진 사람들과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

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태화에서 하는 많은 복지사업 가운데, 정신장애인의 사회통합을 돕고, 위기청소년들의 바른 길잡이가 되어주는 일, 발달장애인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존중받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은 무엇보다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사회 내에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찾아가고, 상대적으로 관심을 받지 못하는 이웃들을 먼저 돕는 진정으로 지역사회 소외된 이들을 위한 복지관이 되었으면 합니다.

Q. 태화를 이용하는 주민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우리 태화의 복지사업과 서비스를 더 많이 활용하고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태화를 사랑해주면 좋겠고, 태화의 복지 정신이 이웃 간에 나눠지면 참 좋겠습니다. 태화를 이용하는 분들도 다 같은 복지인의 마음으로 함께 살아가면 더없이 행복할 것 같습니다. 태화를 구심점으로 하나의 지역 공동체가 형성되고, 이웃과 이웃이 서로 돕는 선한 움직임이 계속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Q. 태화복지관 직원들에게 당부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태화의 임직원들이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더욱 열심히 일하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직업 가운데 가장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직업이 사회복지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복지관에는 사회복지사가 아닌 분들도 있지만, 사회복지사 자격증만 없을 뿐이지 모두가 복지사업에 동참하고 있기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일하면 좋겠습니다. 삶 속에서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세워주며 꿈과 희망을 주는 것은 신앙인으로서도 '하 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복지관 프로그램 참여 이야기 이웃 톡(Talk)

‘이웃 톡(Talk)’은 태화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다양한 이웃들의 이야기 (참여 소감, 배움, 에피소드 등)를 다른 이웃들과 나누기 위해 2018년 5월 공모 이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1등으로 당선되신 분의 글을 소개해드립니다. 이웃 톡에 참여해주신 많은 분들의 이야기는 7~8월 중 복지관 관내 게시판을 통해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웃 톡(Talk)에 관심 갖고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곳 특 시상 전달, 태화복지관 운영주 관장님과 함께 (왼쪽 조미영님)

좋은 사람들

글 조미영(지역주민)

아들은 지난 2017년 3월부터 태화복지관 내의 강남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빌링슬리아카데미'에 다니고 있다. 발달장애 영역 중 자폐성장애인 아들은 지형지물이 낮설고 의사소통 부족으로 누군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기에 등원과 하원에 엄마가 함께 한다. 그럼에도 아들의 자립심을 높이기 위해서 혼자 무언가를 하도록 끊임없이 가르치고 있다.

아침에 등원을 할 때, 우리 집이 2층이어서인지 평생교육센터가 3층임에도 아들은 자꾸 2층 프로그램실로 들어가고 한다. 한층 더 올라가라고 하면 씨~익 웃으며 계단으로 이동하는데, 어느 날은 혼자 올라가는 것을 1층에서 보고 있자니 아니나 다를까 2층으로 들어가는 게 보였다. 재빨리 올라가서 바로 나서지 않고 지켜보고 있자니, 2층에 있던 직원분이 아들에게 친절하게 한층 더 올라가라고 안내해주는 것을 보게 되었다. 하지만 아들은 특

유의 미소를 지으며 커다란 덩치로 직원을 지나쳐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이쯤 되면 보통은 아들을 잡고 밖으로 밀쳐내려고 시도하는데, 직원 분은 침착하게 "이 복도를 지나서 위층으로 가도 되니까 지나가세요."라고 말하며 3층으로 안내해주었다.

누군가 보면 그 장면이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태도는 방어적이고 배타적이며 무시하는 경향이 많았기에 항상 아들의 그림자로 사는 엄마로서는 큰 감동을 받았다. 아들이 3층으로 갈 수 있도록 에스코트해주었던 그 모습은 '날개 없는 천사'였다.

평생교육센터에서 아들의 담당 선생님 역시 항상 애정이 가득한 든든한 지원자이다. 작은 일도 부모와 상담하고 아들의 성장을 위해 의논해 주시니 태화에 온 것이 얼마나 잘한 일인지 마음이 폭 놓이는 요즘이다.

평생교육센터가 태화복지관에 설치된 가장 좋은 점은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이용하는 사회복지관이라는 점이다. 유아부터 성인, 어르신까지 비장애인들과 함께 하는 복지관에서 오가며 만나는 눈 맞춤 속에 장애에 대한 이해가 저절로 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금방 눈에 띄는 인식의 변화는 없을지라도 더불어 사는 통합사회의 아름다운 공간이라 여겨진다. 어린이들은 어려서부터 장애인을 보면서 다양한 사람들의 존재를 인식하고, 외향보다 내면을 볼 수 있는 심성이고 온 어른으로 성장하여 아름다운 세상을 함께 살아가고 있다.

장애를 가진 아들과 세상에 나서는 사람들의 불편한 시선이 참 아파다. 우리는 총을 맞고 살아가고 있다. 기분 나쁜 눈총, 동정의 눈총, 멸시의 눈총 등 가슴으로 들어오는 총... 태화복지관에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센터 뿐만 아니라, 정신장애인을 위한 공간도 있고, 청소년을 위한 쉼터도 마련되어 있다. 사회적 약자를 먼저 보듬어 여기까지 온 태화복지관은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복지관답게 지역사회 안에서 훌륭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 안에 내 아이가 소속되어 하루하루를 알차게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드린다.





생활 속 작은 습관 스트레칭

글 전반기 사회체육지도교사(사회체육팀)

오늘도 어깨가 아프신가요? 어깨 통증은 현대인의 병이라 할 만큼, 수험생, 가정주부, 회사원, 어르신 등 나이와 성별에 관계없이 불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주위에서 흔히 어깨 통증을 의례 '오십견'이라고 부르며 시간이 가면 저절로 좋아질 것이라고 방치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뒤틀리게 악화되어 큰 수술에까지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잘못된 정보와 인식으로 조금만 아파도 원인을 찾기 위해 큰 병원을 찾아다니기도 합니다. 이러한 원인은 어깨 관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깨 관절에 대해 바른 이해를 갖고, 어떻게 하면 일상생활 속에서 어깨 건강을 지킬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깨 관절 질환은 의학용어로는 '오십견', '회전근개파열', '석회성건염' 등으로 분류됩니다. 어깨 질환이라고 모두

수술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태에 따라 약물치료, 주사치료 등 간단한 치료만으로도 기능을 되살릴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상정도에 따라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먼저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깨 통증의 근본적인 원인은 상체의 자세가 바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굽어진 어깨는 주변 근육과 인대의 유연성을 잃게 되는데, 이후 외부의 작은 충격에도 인대가 쉽게 파열되는 이유가 됩니다. 관절염까지 진행된 경우가 아니라면 대개 어깨 관절 문제는 본인 스스로의 '자가 운동치료요법'으로도 간단하고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치료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태화 체력단련장에 오시면 보다 전문적인 운동치료법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태화 체력단련장 (02-2040-1734)



진자운동

준비운동으로 시계추 운동

아프지 않은 쪽 팔로 몸을 안정되게 고정된 채로 아픈 어깨는 힘을 빼고 아픈 쪽 팔을 추처럼 땅을 향해 늘어뜨린 후 추를 흔들 듯이 부드럽게 전후, 좌우, 시계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부드럽게 흔들어 주면 됩니다. 각 방향으로 약 10회 정도 반복해 주세요.



거상운동

아픈팔을 머리위까지 올리기

누워서 반대편 손으로 아픈 팔의 손목 부위를 잡고 서서히 올립니다. 최대한 스트레칭을 해야 하며 조금 아플 때까지 합니다. 천천히 10초를 세십시오. 통증이 있다면 서서히 늘려갑니다. 날개짓 모양도 함께 해보세요. 한회 10번씩, 하루에 세 번 하시고, 할 때마다 조금씩 범위를 늘려 나가십시오.



내회전운동

아픈 팔을 등허리 위로 붙이면서 올리기

양손에 목욕 수건을 잡고 때밀이 하듯이 하여 천천히 아픈 팔을 등허리 위로 올리도록 하십시오. 최대한으로 내회전시킨 상태에서 10초를 셀수 있을 때까지 노력하십시오. 사무실이나 직장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실천해 보세요.



내전운동

아픈팔을 붙여 반대편 어깨에 닿게하기

아픈 팔의 팔꿈치를 가슴을 가로질러 반대쪽의 어깨에 닿게 하는 운동입니다. 다시 말해 아프지 않은 쪽 손을 이용하여 아픈 팔을 끌어 반대쪽 어깨에 닿게 하려는 운동입니다. 최대한 내전운동이 된 상태에서 10초를 세어 보십시오. 이 운동 역시 한번 할 때 10번씩, 하루에 세 번 반복 하십시오.



태화복지관의 「달달한 사업공유회」



지난 2월 3일, 태화복지관 전 직원이 한 자리에 모여 '달달한 사업공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각 부서의 핵심사업을 공유하고 피드백을 주고받는 '태화를 바꾸는 시간', 사회체육팀 직원과 함께 바른 자세 스트레칭 및 운동의 필요성에 대해 배우고 실습하는 '닥터 헬스의 스트레칭 타임', 조별로 협동심을 기를 수 있는 조별활동 '미션 파서블'의 달달~한 시간들로 구성되었습니다. 태화 비전 2021 GREAT HARMONY의 '조화를 중시하며 함께 걷어가는 태화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한 첫 걸음인 사업공유회를 시작으로, 2018년에도 조화를 이루며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 개관 97주년 감사행사



지난 4월 3일, 복지관 5층 아바드홀에서는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 개관 97주년 감사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김민우 목사님께서 '소금과 빛'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주시고, 복지관 직원동아리인 기쁜노래떨침에서 '빛과 소금되어' 찬양으로 97주년 행사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2부 행사에서는 우수 직원을 포상하며 함께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태화 97주년을 맞아 지역주민들과 인사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97년의 역사가운데 태화의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역사회 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



제53회 태화바자회 「오삼바자회」

제53회 태화바자회가 지난 4월 25일~26일 이틀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오삼바자회는 지역주민들과 후원업체 사장님들의 정성이 모여 다양하고 풍족한 물품 가운데 진행 할 수 있었습니다. 지하 1층부터 1층, 5층까지 3개 층에서 옷, 아동용품, 생활 잡화, 먹거리 등을 판매 하였습니다. 특히, 아이들과 함께하는 컬링, 룰렛게임 이벤트가 많은 인기를 얻었습니다. 오삼바자회에서 마련된 수익금 21,685,840원은 강남구 내 소외된 이웃을 위한 사회복지기금으로 소중히 사용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태화바자회는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축제의 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리엔파크 「우리동네 꽃나무심기 캠페인」



지난 4월 7일, 세곡동 리엔파크에서는 '우리동네 꽃나무심기 캠페인'이 진행됐습니다. 리엔파크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구성된 '오!리엔'이 주관하여 진행한 본 캠페인은 가족, 친구, 이웃들이 함께 모여 꽃나무를 심고 아파트 단지 내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하고자 기획됐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50여명의 이웃들이 서로 인사도 나누고 추억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 정이 넘치는 리엔파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세곡동 한신희플러스 6단지과 함께하는 「이웃더하기」



이웃과 정이 넘치는 한신희플러스 6단지를 만들기 위해 태화에서는 지난 2017년부터 이웃더하기 사업을 준비해 왔습니다. 6 단지를 정기적으로 방문하며 관리사무소와 주민 대표단, 여러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던 중 단지 내에 있는 밤토리도서관 운영에 참여하는 주민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1년여의 시간을 쌓으며 주민들이 이웃더하기 사업의 목적에 대해 이해하시게 되었고, 올해 4월부터 책모임을 시작으로 정기적인 주민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웃 간에 정이 넘치는 한신 6단지를 위한 이웃더하기 주민들의 행보를 기대해 주세요!



태화해뜨는샘 「레인보우사업 비전 미션 공유회」

태화해뜨는샘은 지난 5월 24일 '레인보우 비전 미션 공유회'를 진행 하였습니다. 정신장애인의 희망일터인 '레인보우 카페, 매점'이 올해로 9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동안 많은 분들의 사랑 속에 운영 될 수 있었고, 90여명의 근로자에게는 소중한 일자리가 되었습니다. 숨 가쁘게 달려온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며 레인보우의 미래를 그리기 위한 비전과 미션을 수립 하였고, 이웃들을 초대하여 본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레인보우의 도약을 따뜻한 눈빛으로 축복해 주신 카페 이웃사이, 주민, 가족, 직원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레인보우 카페, 매점이 행복하고 건강한 일자리이자, 이웃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길 항상 응원해 주세요.

태화어린이집 나누기 「내꺼 줄게」



태화어린이집에서는 2018년 3월부터 나누기 활동의 일환으로, 가까이 있는 친구와 가족들에게 내 것을 나누는 “내꺼 줄게”란 프로그램을 월 1회 진행하고 있습니다. <뽕튀기 나눠줄게 같이 먹자>, <친구야 내가 좋아하는 장난감 줄게 같이 놀자> 활동으로 내 것을 친구에게 나눠주는 마음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나눔이 우리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아이들의 마음속에 내재화되기를 바랍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발달 수준에 맞춘 나눔 교육을 통해 태화어린이집 친구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관계 능력이 더욱 더 성장하기를 기도해 봅니다.

강남구청소년쉼터 「I'm 프로젝트」



강남구청소년쉼터에서는 청소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준비하여 떠나는 I'm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이 여행 테마를 정하고 모든 과정을 주도하며 진정한 나를 찾아 떠나는 시간입니다. 2018년 상반기에 총 6회가 진행되었으며, 12명의 청소년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어린 시절 할머니와의 추억을 떠올리며 할머니가 잠들어 계신 산소 방문한 친구, 검정고시 합격 후 학업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강원도 여행을 떠난 친구 등 청소년 각자에게 의미 있는 I'm 프로젝트를 다녀왔습니다. 청소년들이 스스로 원하는 것, 필요한 것을 찾아 일어설 수 있는 동기와 힘을 기를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강남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파티플래너」

지난 3월, 강남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에 전문교육과정으로 '파티플래너' 과정이 신규 개설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발달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 파티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가 장애를 바라보는 인식을 '조화'와 '자연스러움'으로 변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약 3개월 동안 파티용 음료와 디저트를 만드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학습하고 훈련하고 있습니다. 배움의 적용으로 4월에는 태화복지관 오삼바자회에서 직접 만든 마들렌과 초코칩쿠키를 판매하면서 지역주민들과 교류하고 소통하는 소중한 경험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친구들이 멋진 '파티플래너'가 되어 지역주민들을 위해 파티를 여는 그 날까지, 따뜻한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SPONSORSHIP

후원참여 문의 및 신청 : 지역조직화팀 2040-1632

CMS 후원

후원자가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 전자결제로 후원금을 납부하는 방법으로 후원자의 동의아래 기관이 자동이체를 신청하고, 이체수수료는 기관에서 부담합니다.

지로후원

매월 초 가정 또는 직장으로 지로용지를 보내드립니다. **지로입금번호** 7607040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

통장입금

복지관전용 후원계좌를 통한 계좌이체로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신한은행 140-003-839930, 외환은행 272-22-00173-6, 국민은행 790-01-0035-287, 우리은행 725-157495-13-003

온라인 후원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 네이버 해피빈에서 사이버 머니(콩) 후원 <http://happylog.naver.com/taiwha.do>

신한카드 아름스 포인트 기부(해당사이트에서 복지관 검색) <http://arumin.shinhancard.com>

직접후원

복지관 지하1층 안내데스크에서 직접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물품후원

식품, 생필품, 도서, 의류 등 물품을 직접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이웃, 서울디딤돌 후원

지역 내의 상점, 학교, 기업체, 개인이 자율적으로 기부(물품, 서비스)에 참여하여 어려운 이웃을 돕고,

도움 받은 이웃은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여 '나눔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따뜻한 후원활동입니다.

나눔 분야 (상점, 학교, 학원 등 업체에서는 이렇게 참여 가능합니다.)

- 교육 : 학원, 개인교습소의 무료수강지원
- 위생 : 미용실·목욕탕 무료이용지원
- 문화 및 예술 : 공연장, 극장의 무료공연관람지원
- 보건 및 의료 : 병원·의원·약국 등의 무료진료, 약품지원
- 외식 및 생활용품 : 마켓, 식당의 음식, 생활용품 등을 무료제공지원
- 교통 및 이동지원 : 운수회사의 이동지원

2018년도 후원금 수입지출 내역보고 (2018.1~201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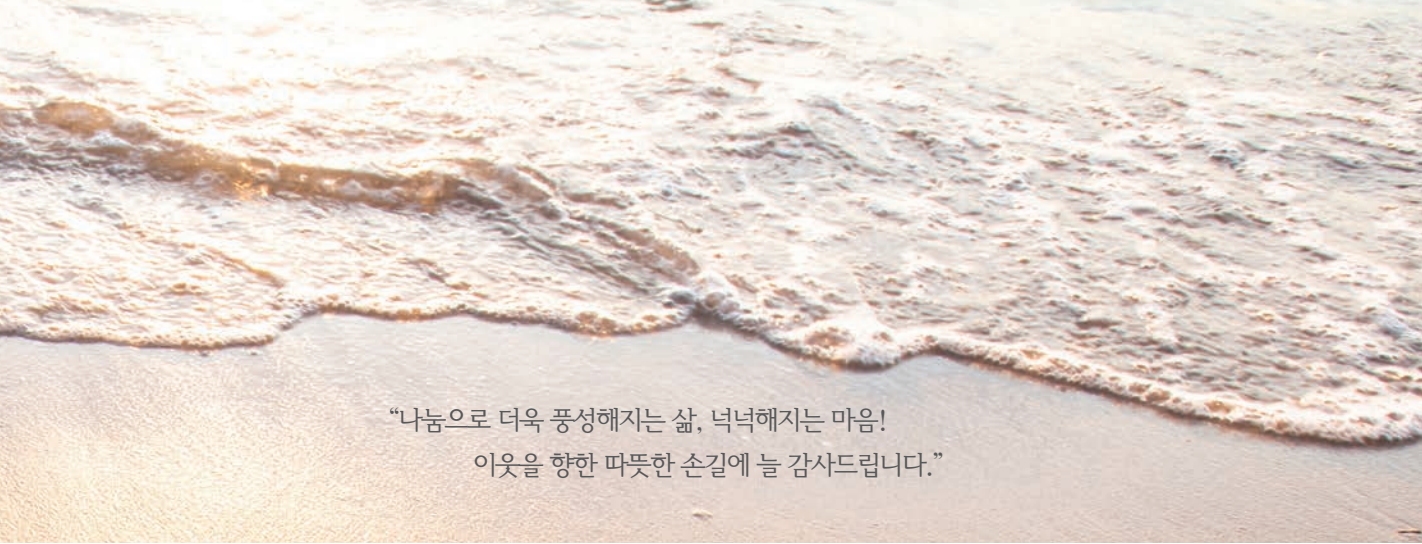
후원금 수입		후원금 지출	
전년도사업지정후원금 이월금	43,498,407	결연후원금	3,100,000
전년도 비지정사업후원금 이월금	56,090,655	교육문화사업비	30,242,800
사업지정후원금	17,024,000	사례관리사업비	7,706,865
비지정후원금	38,991,160	서비스제공사업비	4,961,292
결연후원금	3,265,000	지역조직화사업비	5,123,050
외부지정후원금	4,176,000	이종범장학후원사업비	3,000,000
예금이자	34,890	후원홍보비	11,757,650
		복지관운영비	391,040
		이월금	96,797,415
합계	163,080,112	합계	163,080,112

Thanks to SPONSOR

2018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후원에 참여하신 고마운 분들

일반후원

강다영	강용석	강은영	강푸른	강하영	류호연	류효순	류희만	문보영	문신환	이경아	이경진	이규용	이근아	이근영
강혜진	고경문	고기남	고미정	고애영	문영숙	문용기	문용채	문지희	민옥희	이덕영	이명자	이명희	이미경	이미진
고우경	고유진	고은정	고인자	고효영	박건수	박귀례	박동산	박명숙	박상선	이병우	이복숙	이사라	이상욱	이선복
구분환	권성오	권소영	권영탁	권지현	박선영	박성분	박성원	박성희	박세희	이성숙	이성주	이소연	이수연	이숙희
권지혜	권현수	권혜경	권혜진	길경자	박수연	박순례	박순혁	박유림	박유신	이순자	이영주	이원재	이원해	이원희
길기태	김경희	김금옥	김기세	김기수	박윤자	박은지	박재진	박정훈	박종부	이 윤	이윤진	이은경	이은영	이은정
김기원	김남희	김다숙	김다현	김덕형	박주한	박주현	박지숙	박지영	박지원	이은희	이정석	이정심	이정자	이종은
김동준	김동희	김명란	김명희	김문성	박향미	박현경	박현주	방궁호	방동환	이지민	이지연	이지현	이진교	이창준
김미나	김민경	김민정	김보영	김성욱	방상익	방승찬	방정열	배경희	배명희	이현규	이형욱	인윤희	이덕순	임미해
김성은	김세정	김세현	김수연	김수정	배호균	배효범	백승훈	백재철	변주희	임선빈	임성일	임이랑	임종필	임채춘
김수혜	김승호	김애희	김연정	김영민	서유정	서정민	서창배	설원희	성기원	임태희	임평화	임한샘	임혜원	장민석
김영삼	김용기	김원정	김윤숙	김은경	성미경	성우주	성춘선	손문경	손문기	장성주	장수진	장영자	장용훈	장정아
김은기	김은숙	김은아	김은혜	김인관	손문배	손문준	손영지	손유진	송정선	장현규	장현숙	전미나	전완기	전일배
김인영	김자옥	김재영	김주하	김준호	송충근	송혜란	신근화	신대성	신선균	정경환	정다정	정민정	정민주	정수덕
김지수	김중식	김태은	김명중	김필수	신순철	신승철	신영주	신혜선	심대식	정승엽	정승원	정애경	정연경	정연현
김하나	김현숙	김현정	김현직	김현학	심우찬	심장식	심형석	안나현	안여진	정영희	정용제	정원호	정윤성	정은수
김혜란	김혜림	김혜영	김항희	김희선	안정미	안정선	안지명	어윤희	엄선애	정의숙	정재훈	정진희	정현도	정혜욱
나명경	나선미	나윤일	나윤찬	나홍준	여수경	여운선	여현정	염광철	오경애	정희정	조경현	조규필	조기한	조세진
남기현	남수영	남현우	노선주	노유경	오병두	오정철	오종진	오하진	용도연	조송미	조아라	조유희	조윤경	조일호
도세훈	도창현	라미희	류담주	류재식	우정현	유인숙	유혜선	윤광무	윤민희	조창호	조태욱	주영성	주진원	지동현
					윤성주	윤송화	윤연주	윤은주	윤정아	진희경	차지현	채주희	최명범	최미숙
					윤천성	윤화수	윤희자	이기영	이경숙	최민서	최병욱	최봉탁	최서영	최성실



“나눔으로 더욱 풍성해지는 삶, 넉넉해지는 마음!
이웃을 향한 따뜻한 손길에 늘 감사드립니다.”

최소영 최승만 최영복 최우란 최우혁
최원경 최유실 최윤석 최재봉 최지아
최지웅 탁현우 하순천 하정길 한경희
한남희 한문덕 한성욱 한영희 한혜진
하진선 헤 민 흥기연 흥승기 흥원순
홍지희 황부자 황영웅 황철준 황현정
강남선한목자교회 사랑빵회
신성푸드서비스 재키헤어 타워하우스
피스코팩 한국미쓰비시

일시후원

김인영 이경림 강남대학교사회복지학과
국민은행일원역지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울연합교회 숙명여자중학교
신한은행일원역지점 이마트수서점
하트하트재단 한국야쿠르트사회복지재단
한빛교회

결연후원

김금옥 김문성 김미나 김태권 문석주
박용덕 손선희 윤은숙 임장현 최미양

최재훈 현정순 미국남가주사랑의교회

물품후원

맹현숙 구로종합사회복지관 다나
구세군서울후생원 다이소아성산업
더풀하우스 도곡1동주민센터 동국제약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 DB손해보험
리뉴얼디자인 문 민트 바이스타
비이심플 삼성서울병원사회복지실
서울트레이딩 성모자애복지관 시슬리
파리바게뜨수서동성당점 스튜디오빈티지
에이앤뉴욕 울 인터텍스 제이드
제이제이 글로벌기프트 쿨2 태영섬유
특샵 판교종합사회복지관
하상장애인복지관 한국야쿠르트일원점



T h a n k s t o VOLUNTEER

2018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자원봉사해주신 고마운 분들

방과후교실

고재희 기나연 김연우 맹수민 신동현 신정원 양민수 오지혜
이승섭 장선형 정한서 정희주

강남지역청소년복지협의회 멘토링 프로그램

김연주 김호정 박민재 박서진 전예원 정금아 정재근

곳맘

김단비

영어스토리텔링

김재우 김주영 김준서 변서윤 양호연 양희지 오은재 어유연
최연희

가족품애

이승섭 김에덴 이경동

'벗'꽃향연

이석종 최혁 이지영 조남혁 유주연

태화초록교실

강다원 김경래 김경호 김광명 김단비 김미소 김서현 김선빈
김선우 김윤미 김은영 김진삼 김진아 김현준 김현하 김혜윤
남길석 민경호 박경은 서태원 신민경 신예은 심미정 안도현
오준우 오진택 위우진 이기영 이민정 이성현 이윤신 이재동
이종성 이주용 이현준 임원준 임주현 임현승 진선빈 최강열
최 윤 최종문 포스코A&C 스타벅스코리아

가족도서실 이준혜 김송이

사랑의도시락

(조리) 길태섭 김은경 황수인 명미숙 이상희 정수진 노재숙
조영희 공현주 황혜미 박찬임
(배달) 김은경 김강호 김건호 김민서 김민호 김태영 임고은
임효주 임경수 임영수 박재원 신경호 이영옥 권정우 정난영
정남희 박희정 김연화 강영현 곽희영 양희정

사회교육팀 이지은 오지연

태화그레이트하모니오케스트라

민준철 남윤재 박주한 신다정 이예은

사랑빵회

길태섭 김현주 노재숙 박현옥 서금숙 엄지연 윤은전 이남경
이은미 이정심 이종경 이지희 장 명 장재희 최양신 황 경

대학생 사회봉사

김동현 김미진 김성령 김호영 노경민 노영인 동청연 박나영
박선영 박혜란 박훈희 방진영 신예찬 양미래 윤지연 이소량
이예림 이유진 이윤희 이지원 장석호 전민옥 전지원 정은호
한우재



데님마켓

20~30대 여성 데님스타일 의류 쇼핑몰

유니크한 디자인의 '리얼 진'으로 착한 가격의 데님 제품을 판매하는 데님마켓은
지난 2017년부터 정기적으로 청바지와 데님의류를 후원해 주고 계십니다.
항상 좋은 의류를 나누도록 세심하게 챙겨주시는
데님마켓 임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데님마켓 www.denimmarket.net © 서울시 중구 청구로17길 240-9(신당동) 부흥빌딩 102호

태화와 함께 나눔을 실천 할 기업을 찾습니다!

소외된 이웃을 위해 함께 동행할 기업들의 물품후원, 기금후원, 자원봉사활동을 기다립니다. 기업에서 후원하신 물품은 법인세법 제24조와 소득세법 제34조에 의하여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 지역조직화팀 2040-1632



06353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 185 Tel. 2040.1600 Fax. 2040.1791

www.taiwha.or.kr  www.facebook.com/taiwha